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Childrearing Involvement,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Growth as a Parent

이 정 순*

Lee, Jeong S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childrearing involvement,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parental growth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Data were derived from a survey of 487 pairs of fathers and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The principal findings were that fathers who took a greater role in childrearing had better husband-wife relationships. Fathers who took on more childrearing involvement experienced “a broadening of one’s vision” and/or “self-regulation” in growth as a par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indirectly influenced parental growth through the medium of husband-wife relationship.

Key words : 아버지의 양육참여(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부부관계(husband-wife relationship), 부모성장(parental growth)

* 접수 2003년 2월 28일, 채택 2003년 4월 11일

*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E-mail : jslee1024@hanafos.com

I. 서 론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가사와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양육기의 가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Pleck, Lamb, & Levine, 1986). 1970년대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잊혀진 공헌자로서의 아버지(Lamb, 1975)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Blanchard & Biller, 1981; Grossman, 1987 ; Palkovitz, 1984),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아버지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안병철, 1990; 양득주, 1988; 최경순, 1991; 허선자, 1993). 아버지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축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남성의 가족역할의 의미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성역할(정현희·최경순, 1995; Parke, 1981), 도덕성(정현희·최경순, 1992), 사회성(은주영·류도희·이귀옥, 2001), 인지(김진·이신숙·신효식, 1995; Blanchard 등, 1981)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부모의 관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의미를 파악한 몇 안되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원지와 한경혜(2001)가 아버지 역할의 수행정도를 30대~50대 연령층의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복지감을 촉진시키는 요인

으로서 보고했다. 그리고, 山口(1993)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아버지의 정신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많고,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정신적인 성장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新谷와 村松, 牧野(1993)는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 어머니일수록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의하게 많이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는 자녀의 기질이 순하다고 느낄수록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의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위의 선행연구로부터 아버지역할의 수행, 양육참여는 아버지 자신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모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며 심리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부모됨은 즐거움, 염려 등의 감정과 행복감을 유발하여 심리적인 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Rossi, 1980),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하며, 부모가 되기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고, 수용적이며, 관대해진다(Galinsky, 1992). 이러한 책임감과 수용성, 관대함, 타인에 대한 배려,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 초월적인 존재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등은, Allport (1968)가 인격의 발달적 변화로서 열거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되고 난 후의 지각변화를 부모성장으로 기술했다. 지금까지 부모성장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성장에 있어서 양육참여(新谷 등, 1993), 학력(若松·柏木, 1994)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반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연구자들(Belsky, 1984; Feldman, Nash, & Aschenbrenner,

1983)은 아버지 역할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의 질을 제시하고 있다. Nugent (1991)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부부관계를 높이 평가할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부모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부부관계(Belsky, 1984; Feldman 등, 1983), 부부간의 의사교환 수준(Belsky & Isabella, 1985)은 남성의 부모역할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보고되었다. Belsky에 의하면, 자녀가 1, 3, 9 개월의 시점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부부관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eldman 등은 아내가 임신 중일 때와 출산후 6 개월의 양 시점에서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아버지가 되고 난 후의 자녀 돌보기, 함께 놀아주기 등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상한 아버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김철규, 1997),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측면을 분석모델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연구로, 최규련(1993)은,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가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현숙과 김득성(1996)은 맞벌이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역할갈등 정도와 맞벌이 부부가 겪는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사참여는 아내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남편의 가사참여가 본인과 배우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관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기여도를 부모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 아버지의 부모성장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버지 양육참여, 부부관계는 부모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세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487쌍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보면 다음

과 같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6.4 세로 25세부터 57세까지 분포하고, 어머니가 33.4세로 24세부터 48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만 3세부터 6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62.

9%(307명), 둘째가 33.0%(161명)였다. 나머지는 셋째 이상이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2.2%(254명), 여아가 47.8%(233명)였다.

연구 대상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23.0%(112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8.4%(41명), 대졸이상 68.6%(334명)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고졸이하 40.5%(197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8.2%(40명), 대졸이상 51.3%(250명)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고용직이 66.2%(32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외가 자영·자유업이다. 어머니의 경우, 51.6%(251명)가 전업주부이며, 그 이외는 상근직 및 비상근직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버지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성장

부모가 되기 이전과 부모가 되고 난 후를 비교하여, 부모로서 어느 정도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柏木와 若松(1994)의 12 문항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척도는 6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를 키우면서, 운과 인연을 생각하게 되었다」등의 「운명의 수용」, 「나의 성격은 자녀를 키우기 이전보다 원만해졌다고 생각한다」등의 「유연성」, 「자녀의 장래의 안전을 위해 환경문제(대기오염, 식품공해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등의 「시야가 넓어짐」,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의 입장과 의견을 주장하게 되었다」등의 「자기주장」, 「자녀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등의 「자기규제」, 「자녀가 태어난 후, 생활의 리듬감이 생겼다」등의 「삶의 보람」이 포함된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부정」, 「전적으로 부정」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성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부모의 변화는, 현재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가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주관적 체험에 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한 柏木 등(1994)의 연구방법을 따랐다. 그러나, 이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연구 대상자가 부모가 되기 이전 어떠했는가가 측정되어 있지 않고, 부모 자신의 현재의 주관적 인지를 토대로 해서 변화의 정도가 결정되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화의 객관적인 정도가 측정되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점을 주의해서 해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성장 6요인의 신뢰도 계수 α 는 다음과 같다. 「운명의 수용」은 .78, 「유연성」은 .70, 「시야가 넓어짐」은 .72, 「자기주장」은 .78, 「자기규제」는 .74, 「삶의 보람」은 .70, 부모성장(합계)는 .83으로 나타났다.

2) 양육참여

현재 자녀를 돌보는 행동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柏木 등(1994)의 7문항을 수정, 번역하여 사용했다. 본 척도를 사용한 것은 양육참여에 관한 선행연구(柏木 등, 1994)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문항의 내용은, 「자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본다」, 「자녀의 놀이 상대가 되어 함께 놀아 준다」등이 포함된

다. ‘언제나 한다’, ‘조금 한다’, ‘조금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참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의 신뢰도 계수 α 는 .74로 나타났다.

3) 부부관계

Gottman과 Krokoff(1989)는 부부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고했다. 이에 준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화제나 자녀양육에 관한 대화, 대화할 때의 감정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竹之内(1995)의 7문항을 수정, 번역하여 사용했다. 문항의 내용은, 「남편(아내)에게 오늘의 일을 묻는다», 「부부간에 서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등이 포함된다. ‘언제나 그렇게 한다’, ‘조금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많으며,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의 신뢰도 계수 α 는 .79로 나타났다.

4) 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연령, 학력, 부모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 형태, 아동의 수, 아동의 나이·성별, 가족 구성 등을 물었다.

3. 연구 절차

연구대상의 표집은 서울의 중류층 지역(강남구, 송파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6곳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귀가시간에 아동을 통하여 717부(아버지용

설문지 717부, 어머니용 설문지 717부)의 설문지가 가정으로 보내졌다. 2주간에 걸쳐 총 529 쌍의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설문지가 회수되어 73.8%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거나 한쪽의 부모만이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487쌍의 설문지(아버지·어머니 포함)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용 설문지를 중심으로 양육참여, 부부관계, 부모성장 변인을 분석하였으며, 어머니용 설문지에서는 부부관계 변인만을 선택하여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부부관계와 부모성장을 검증하기 위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체 득점 분포에서 상위집단(25%, 126명)과 하위집단(25%, 122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부부관계, 부모성장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가 부모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와 부모성장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가 부모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

우선,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른 부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체 득점분포에서 상위집단(25%, 126명)과 하위집단(25%, 122명)으로 나누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른 부부관계

변 수	양육참여 상위집단	양육참여 하위집단	차이 검증
	M (SD)	M (SD)	t값 유의도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관계	3.25(.43)	3.00(.49)	4.86***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	3.31(.43)	3.13(.49)	3.31***

***p<.001

그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 상위집단의 부부관계 득점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집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른 부모성장을 검토했다 <표 2>.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하여, 전체 득점분포에서 상위집단(25%, 126명)과 하위집단(25%, 122명)으로 나누어, 부모성장에 관해 t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이 부모성장 ‘시야가 넓어짐’과 ‘자기규제’의 요인 득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시야가 넓어짐’은 ‘자녀의 장래의 안전을 위해 환경문제(대

<표 2>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른 부모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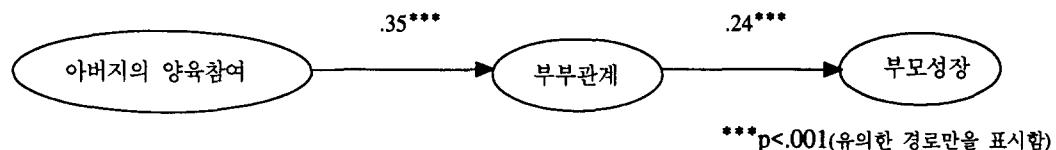
변 수	양육참여 상위집단	양육참여 하위집단	차이 검증
	M (SD)	M (SD)	t값 유의도
부모성장			
운명의 수용	2.76(.85)	2.78(.80)	.21
유연성	2.98(.72)	2.88(.67)	1.27
시야가 넓어짐	3.08(.77)	2.89(.73)	2.22*
자기주장	2.60(.77)	2.53(.74)	.73
자기규제	3.28(.69)	3.05(.75)	2.72**
삶의 보람	3.22(.70)	3.20(.67)	.22
합 계	2.99(.53)	2.89(.50)	1.62

**p<.01 *p<.05

기오염, 식품공해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자기규제’는 ‘자녀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참을수 있게 되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요인이다. 자녀양육에 많이 참가하는 아버지들은 식품 공해와 같은 자녀의 건강에 밀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며,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내하는 등 자신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가 부모성장에 미치는 영향

우선,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가 부모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초가 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부관계와 부모성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림 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 부모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의 상관관계(N = 487)

	양육참여	부부관계	부모성장
양육참여	1.00	.35***	.04
부부관계		1.00	.25***
부모성장			1.00

***p<.001

경로분석은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서 부부관계로, 부부관계에서 부모성장으로의 흐름을 가정하여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립변인, 부부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로부터 부부관계에 유의한 경로가 나타났다($F(1,448)=62.76$, $p<.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부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성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경로가 나타났다($F(1,391)=24.18$, $p<.001$).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부관계는 부모성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문제의 검증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라서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아버지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관계 득점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양육기의 가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Pleck 등(1986)의 견해를 지지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Belsky, 1984; Feldman 등, 1983), 아울러 자녀 양육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빌랄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라서 부

모성장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아버지들은 부모성장의 '시야가 넓어짐'과 '자기규제'의 요인 득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성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新谷 등, 1993). 특히, 부모성장의 '시야가 넓어짐'은 자녀의 장래의 안전을 위해 환경 문제와 국가의 장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요인으로서, 직업역할에 익숙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통하여 직업이외의 다른 화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기규제'는 자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문항을 포함하는 요인이다.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체로서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Benedek(1975)가 서술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심리적인 성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부부관계 및 부모성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현대의 남성들이 직업역할 못지않게 가정역할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鹿鳴, 1993), 아버지 양육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제시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아버지 역할은 친밀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더

욱 증진되며(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원만한 부부관계는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지각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양육기에 있는 아버지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다면적으로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남성의 양육참여가 미미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어질수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시 소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아버지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 대상자를 표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직업역할에 대한 의식체계와의 관계가 보고되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와 아버지의 직업관, 근무 만족도등의 근로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추후연구에서는 면접, 관찰방법 등을 병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진, 이신숙, 신효식(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1), 47-55.
- 김철규(1997). 청년세대의 문제와 청년운동. 안호용, 김선업, 김철규, 김홍주(공저), *한국의 청년세대-30대의 위기와 대응*(pp. 95-145). 한국 정책연구소.
- 안병철(1990). 한국남성의 가족역할 : 관련 요인 및 참여정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9호, 231-253.
-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323-334.
- 정현희,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원지, 한경혜(2001). 직업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 최경순(199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 *부산여대 논문집*, 31호, 247-269.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하현숙, 김득성(1996).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309-326.
- 허선자(1993).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교육학 연구*, 31(5), 131-152.
- 柏木恵子, 若松素子(1994). 「親となる」ことによる人格發達：生涯發達的視點から親を研究する試み. *發達心理學研究* 5, 72-83.
- 鹿鳴 敏(1993). 男の座標軸：企業社會から家庭・社會へ 東京：岩波書店.
- 新谷由里子, 村松幹子, 牧野暢男(1993). 親の変化とその規定因に関する一研究.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5, 129-140.
- 竹之内志律香(1995). 母親の家族に對する肯定的評價とソ-シャルサポ-トの關聯. *お茶の水女子大學修士論文(公刊)*.
- 若松素子, 柏木恵子(1994). 「親となること」による發達職業と學歴はどう關係しているか. *發達研究* 10, 83-98.
- 山口典子(1993). 子どもとの相互作用が父親の精神的成长に及ぼす影響. *白百合女子大學修士論文(未發表)*.
- Allport, G. W.(1968). *人格心理學 上·下*(今田惠 譯). 東京：誠信書房.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Isabella, R.(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nedek, T.(1975). Discussion of parenthood as a developmental phas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3, 154-165.
- Blanchard, R. W., & Biller, H. B.(1981). Father avail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third grade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4, 301-305.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Feldman, S. S., Nash, S. C., & Aschenbrenner, B. G. (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6.
- Galinsky, E.(1992).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부모기의 6단계-*. (김세희, 김정준, 송미선, 장화선, 전선옥 역). 서울 : 도서출판 서원.
- Gottman, M. G., & Krokoff, L.(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rossman, F. K., Pollack, W. S., Golding, E. R., & Fedele, N. M.(1987). Autonomy and affiliation in the transac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36, 263-269.
- Lamb, M. E.(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ion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Nugent, J. K.(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75-485.
- Palkovitz, R.(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1060.
- Parke, R. D.(1981). *Fathers*. Cambridge : Harard University Press.
- Pleck, J. H., Lamb, M. E., & Levine, J. A.(1986). Epilog : Facilitating future change in men's family roles. In R. A. Lewis and M. B. Sussman (Eds.), *Men's changing roles in the family*(pp. 11-16). The Haworth Press, Inc.
- Rossi, A. S.(1980). Aging and parenthood in the middle years. In P. Baltes et al.(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pp. 137-205). Academic Press.